

서북 지역 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장유승*

<차례>

1. 머리말
2. 서북 지역 한문학 연구의 현황
 - 1) 연구사 검토
 - 2) 연구 방향과 문제점
3. 서북 지역 한문학 연구의 과제
 - 1) 문학담당층의 신분적 성격과 지역 사회의 권력 구조
 - 2) 경계 지대로서의 문화 교류 가능성 및 근대와의 접점
4. 맺음말

<국문초록>

서북 지역 한문학 연구의 의의는 단순한 지역 문학 연구에 그치지 않는다. 서북 지역은 공간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며, 시간적으로 전근대와 근대가 만나는 접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북 지역 한문학 연구는 문학사의 외연을 넓히고 근대 문학과와의 연관성을 탐색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전근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교류의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다.

그러나 서북 지역에 대한 문학 연구자들의 관심은 소재적, 배경적 측면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서북 지역의 문화적 지형도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며, 이곳에 존재했던 문학담당층의 성격과 이들이 남긴 문학작품의 가치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계의 선행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고, 문학적 텍스트를 바탕으로 사료의 눈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지역 문학 연구는 지역과 관련된 문학 작품을 포함한 모든 문헌 자료를 검토하여 지역 사회의 실상과 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밝히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제어 서북, 평안도, 함경도, 지역 문인, 지역 사회, 경계 지대.

1. 머리말

한문학 연구에서 ‘지역’이 연구 범주의 하나로 자리매김한지는 그리 오래지 않다. 민족 담론이 지배한 7, 80년대 한문학 연구에서 지역 문학의 위상은 결코 높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거대 담론이 퇴조하면서 한문학 연구의 방향이 다각화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지역 문학 연구는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서울과 근기 지역은 지역이라는 화두의 등장을 계기로 문화 공간이라는 각도에서 다시금 조명을 받았으며, 각 지방에서는 해당 지역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지역 문인과 문학 작품의 발굴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역 문학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문학 작품에서 지역적 특색을 추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학 작품에서 지역성을 명징하게 드러낸 연구 성과는 그다지 많지 않은 듯하다. 지역성이 어느 정도의 지역 단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명쾌한 해답이 없는 듯하다. 예컨대 도(道) 단위의 대지역에서는 지역성이라 할만한 특징적 면모를 찾을 수 있을지라도 군현(郡縣) 단위의 소지역에서 그것이 가능한지는 의심스럽다. 지역 사회의 실상에 대한 이해 없이 지역 문학 연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 문학 연구자는 우선 문학 작품을 산생한 지역 사회의 제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성은 물론, 지역 사회의 권력 구조 및 문화적 토대, 그리고 지역 문인의 지역정체성과 같은 사회 문화적 토대에 이르는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가 문학적 형상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 지역 문학 연구의 본령이 아

닌가 한다.

문학 작품을 산생한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지역 문학 연구는 소재적, 배경적 측면에 머무르고 만다. 실제로 지역 문학 연구의 연구 대상은 해당 지역의 명승고적을 읊은 제영(題詠)과 기문(記文), 민간의 풍속을 다룬 기속시(紀俗詩) 따위가 대부분이며, 지역 문인과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는 소박한 수준의 소개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역 문학 연구는 대상 지역을 더욱 세분화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문학 연구가 연구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한, 지역성의 발견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역성을 도외시한 지역 문학 연구는 차츰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북 지역¹⁾은 한문학 연구자의 손길이 좀처럼 미치지 못한 곳이지만 지역적 특색이 비교적 뚜렷하므로 소재적 확장에 머물고 말았던 지역 문학 연구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북 지역은 중국과 한국의 경계지대라는 점에서 문화적 교류의 흔적을 발견할 가능성도 다분하며, 근대 서북 지역의 신속한 개화가 지역 사회의 특수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색할 필요도 충분하다.

그러나 이같은 공감에도 불구하고 서북 지역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는 그리 깊지 않은 편이다. 서북 지역 관련 시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소재적, 배경적 측면에 머물러 있으며, 근대 서북 지역 사회의 성장을 기능

1) '西北'은 西北向의 평안도만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평안도를 뜻하는 '關西'와 함경도를 뜻하는 '關北'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간혹 '海西'로 일컬어지는 황해도도 포함되기도 하나 흔한 경우는 아니다. 관서 지역은 청천강을 기준으로 다시 '淸北'과 '淸南'으로 구분되며, 관북 지역은 마천령을 기준으로 '北關'과 '南關'으로 구분된다. 참고로 북관은 함경도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한문학 연구에서 이러한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케 한 지역인의 지역정체성과 지역의 문화적 토대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는 피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본고에서는 서북 지역 한문학 연구사를 검토하고 그 한계와 오류를 몇 가지 지적한 뒤, 향후 연구가 기대되는 분야를 개관함으로써 서북 지역 한문학 연구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2. 서북 지역 한문학 연구의 현황

1) 연구사 검토

서북 지역에 대한 근대 학문적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연구자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식민통치와 대륙진출을 목적으로 서북 지역의 자연지리 및 사회문화를 두루 조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문학 자료 역시 사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조선사편수회는 1923년부터 1930년까지 총 7차에 걸쳐 서북 지역에서 광범위한 사료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였다.²⁾

이 시기 국내 학자들이 편찬한 문학사와 사상사 방면의 저술에서도 서북 지역 한문학에 관한 언급이 간혹 발견된다. 김태준(1905~1950)은 『조선한문학사(朝鮮漢文學史)』에서 평안도 문인 이시항(李時恒, 1682~1736)을 위해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선우협(鮮于浹, 1588~1653), 이재형(李載亨, 1665~1741), 이원배(李元培, 1745~1802) 등 서북 지역 문인들을 소개하였다.³⁾ 비슷한 시기 현상윤(玄相允, 1893~?) 역시 『조선유학사(朝鮮儒學史)』(1949)에서 선우협, 이재형, 박문일(朴文一, 1822~

2) 장유승, 「朝鮮後期 西北地域 文人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3면. 조선사편수회의 수집 자료 목록은 이 논문의 부록을 참조.

3)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김성언 교주, 태학사, 1996, 242~243면.

1894), 주명상(朱明相, 1839~1910) 등 서북 지역 문인의 학술적 성취를 언급하였다.⁴⁾

하지만 조선시대 서북 지역 문인들을 문학사와 사상사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당시 지식인들에게 널리 동의를 받았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는 두 연구자의 출신 지역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김태준은 평안도 선천(宣川), 그리고 현상윤은 평안도 정주(定州) 출신이다. 따라서 서북 지역 문인들에 대한 두 사람의 애착은 이들의 지역 정체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학사와 사상사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 서북 지역 문인들을 자리매김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해방 이후 편찬된 문학사와 사상사 관련 저술에서 서북 지역 문인이 언급된 사례는 보이지 않으며, 개별 논문에서도 서북 지역이 다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서북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 것은 1975년 와그너(Edward W. Wagner)의 「사회 완충제로서의 과거 - 서북 지역의 사례연구」이다.⁵⁾ 와그너는 서울 경기를 제외하면 서북 지역이 가장 많은 문과급 제자를 배출했다는 의외의 사실을 밝힘으로써 당시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서북 지역 문인들의 신분 상승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 사회의 성장은 근대에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와그너의 견해이다. 와그너 이후 서북 지역은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을 받았으며, 신속한 개화와 열렬한 개신교 수용이 서북 지역의 사회문화적 토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려는 시도가 뒤를 이었다.⁶⁾

4) 玄相允, 『원전朝鮮儒學史』, 『幾堂玄相允全集』, 나남, 2008, 211, 494, 506~507면.

5) 에드워드 와그너, 「사회 완충제로서의 과거 - 서북 지역의 사례 연구」,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이훈상·손숙경 옮김, 일조각, 2008, 54~65면.

6) 李光麟, 「開化期 關西地方과 改新教 - 改新教 收容의 一事例」, 『한국기독교연구논총』 1집,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3.

조선후기 서북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강석화와 오수창에 의해 이루어졌다.⁷⁾ 이들은 조선후기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 사회의 실상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북 지역의 경제 구조와 상업 발전에 대한 연구도 비슷한 시기에 제출되었다.⁸⁾ 다만 이들 연구는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서북 지역 사회의 발전상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였으므로, 지역인의 문화적 성취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후 김선주, 정해득 등이 지역인을 중심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여 지역 사회의 주체성과 역동성을 규명하였으며⁹⁾, 근대적 지식인을 배출한 서북 지역의 문화적 토대를 심층적으로 검토한 연구도 제출되었다.¹⁰⁾

그러나 한문학 방면의 연구는 더디기만 하다. 서북 지역에서 창작된 시문을 지역 문학으로 다룬다면 <공후인(箜篌引)>, <황조가(黃鳥歌)>, <여수장우중문(與隋將于仲文)>, 그리고 정지상(鄭知常)의 한시 등을 비롯한 한문학사의 초기 작품 상당수가 서북 지역 문학에 포함될 것이다.¹¹⁾ 하지만 이러한 작품들이 한문학사에서 자연스럽게 다루어진 반면,

이진구, 「한국 개신교 수용의 사회문화적 토대에 관한 연구 -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2집,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6.

7)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오수창, 『朝鮮後期 平安道 社會發展 研究』, 일조각, 2002.

8) 고승희, 「조선후기 함경도지역의 상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권내현, 「조선후기 평안도 재정 운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9) 정해득, 「朝鮮後期 關北 儒林의 形成과 動向」, 『경기사학』 2호, 경기사학회, 1998.
Sun Joo Kim, *Marginality and Subversion in Korea - The Hong Kyongnae Rebellion of 1812* Washington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7.

10) 노관범, 「1875~1904년 朴殷植의 朱子學 이해와 教育自強論」, 『한국사론』 43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0.

조준희, 「海山 朴東欽의 항일민족운동」, 『승실사학』 40집, 승실사학회, 2010.

11) 실제로 18세기 평안도 지역에서 편찬된 『西京詩話』에서는 이 작품들을 지역 문학의 일부로 취급하였다.

조선시대 서북 지역의 문인과 작품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서북 지역 출신으로서 문학사적으로 이렇다 할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북 지역에 대한 문학 연구자들의 관심은 소재적, 배경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서북 지역 한문학 연구는 해당 지역을 방문한 중앙 문인들이 남긴 작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박미(朴瀾)의 <서경감술(西京感述)>, 신광수(申光洙)의 <관서악부(關西樂府)>, 홍양호(洪良浩)의 <북새잡요(北塞雜謠)>, 조수삼(趙秀三)의 <북행백절(北行百絶)>, 박제가(朴齊家)의 <수주객사(愁州客詞)>, 김려(金鑪)의 <사유악부(思鄜樂府)> 등은 목민관으로서, 유배객으로서 서북 지역의 낮은 환경과 풍속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일부 문인이 특정 시기에 서북 지역에서 창작한 시문 및 묘향산, 백두산 등 서북 지역에 소재한 명승지를 제재로 창작한 시문을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있다.¹²⁾

12) 2000년 이후의 연구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진재교, 「<북새잡요>에 나타난 북관의 진경과 변경민의 삶」, 『동아시아문화연구』 37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3.

성당재, 「약천 남구만의 고토 회복의지 - 변방 음영시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10집, 우리한문학회, 2004.

신익철, 「조선조 묘향산에 대한 인식과 문학적 형상」, 『반교어문연구』 17집, 반교어문학회, 2004.

신장섭, 「秋齋 趙秀三의 <北行百絶>연구」, 『인문과학연구』 12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안대회, 「朴齊家の 『竟信堂夾袋』와 北關風情」, 『한국한시연구』 12집, 한국한시학회, 2004.

이은주, 「申光洙의 <關西樂府> 小考 - '風流'를 중심으로」, 『韓國漢詩研究』 13집, 한국한시학회, 2005.

이승수, 「박제가의 北關 風俗誌, <愁州客詞>」, 『한국언어문화』 29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이와 같이 서북 지역을 ‘대상’으로 삼은 작품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은 반면, 서북 지역 출신의 문인과 작품에 대한 연구는 영성하기 그지 없다. <백두산유기(白頭山遊記)>를 비롯한 일련의 산수유기를 남긴 함경도 출신의 박종(朴琮, 1735~1793)이 산수유기 연구의 붐을 타고 잠시 주목 받았을 뿐이다. 작가론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정도의 문학적 성취를 이룬 문인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국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북 지역의 문화적 지형도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라는 현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16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서북 지역 문인층의 형성 과정과 동향을 추적한 논문을 제출하였다.¹³⁾ 지역 사회의 문화적 토대를 전반적으로 조명하였다는 의의가 있겠으나 지역 문인의 문학적 성취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으며, 이밖에도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겨 두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박종훈, 『楚亭 朴齊家の『愁州客詞』一考』, 『동양학』 4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손혜리, 『鑑洲 朴琮의 <白頭山遊錄> 연구』, 『大東漢文學』 제26집, 대동한문학회, 2007.

이성민, 『汾西 朴瀾의 <西京感述>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제25집, 열상고전연구회, 2007.

손혜리, 『조선 후기 문인들의 백두산 유람과 기록에 대하여』, 『민족문화사연구』 37집, 민족문화사학회, 2008.

주영아, 『박세당의 北關宦遊記 北征錄 연구』, 『東方學』 17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9.

김태영, 『海左 丁範祖의 함경도 유배기 漢詩 일고찰』, 『한국어문학연구』 54집, 한국어문학연구회, 2010.

이훈, 『東海 趙琮鎭의 關北 紀行과 『東海北遊錄』 연구』, 『한문고전연구』 21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이밖에도 단행본으로 심경호, 『한시기행』(이가서, 2005) 등에서 서북 지역 관련 한문학 작품을 다루었다.

13) 장유승, 앞의 논문.

2) 연구 방향과 문제점

서북 지역 한문학에 대한 선행 연구의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서북 지역의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민생의 현실이다. 목민관 또는 유배객으로 서북 지역을 방문한 중앙 문인들은 그곳의 자연과 민생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특히 상기한 연작형 악부시들은 서북 지역민의 삶을 자세히 묘사하여 풍속지로서의 가치가 풍부하다. 연구자들은 이 점에 주목하여 서북 지역을 배경으로 창작된 문학 작품에서 작자의 국토관과 애민의식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작품에는 잠시 서북 지역에 머무르는 방문자로서, 무지한 서북민의 삶을 전달하는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서북민을 다스리는 지배계층으로서의 시선이 짙게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민(民)의 삶을 묘사하는 죽지사의 양식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북 지역을 통치와 교화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중앙의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민의 구체적인 삶의 실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지위가 지역에 따라 과연 얼마나 다를지는 의문이다. 지역적 특색이 두드러지는 독특한 풍속을 소거하면, 문학 작품에 형상화된 서북민의 모습은 전근대 민의 보편적인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지역민의 삶에 치우친 지역 문학 연구는 풍속학적 흥미에 머무르거나 오히려 지역성을 희석할 위험이 있다.

둘째는 이른바 ‘북방 고토’에 대한 관심과 회복 의지이다. 조선 후기 문인들이 창작한 서북 지역 관련 문학 작품에는 북방사적 사실에 대한 언급, 북방 지역의 지명과 위치를 고증하려는 태도, 그리고 국경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자주 발견된다. 나아가 일부 문인들이 한때 고구려와 발해가 지배

했던 북방 고토의 회복을 과감히 주장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동기와 배경을 면밀히 검토한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듯하다.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시기 북방사에 대한 관심은 명청 교체라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서 비롯된 국경 방어 강화의 필요성과 중화계 승의식의 대두에 따른 현상이었다.¹⁴⁾ 민족주의적 역사의식에 입각한 현대 연구자들의 북방사 인식과 소중화주의에 입각한 조선 후기 문인들의 북방사 인식은 표면적으로만 유사할 뿐 그 함의는 전혀 상이하다. 결국 조선 후기 문인들의 북방 고토 회복 주장이 크게 부각된 이유는 연구자들의 현대사적 문제의식이 과잉 개입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보다 서북 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이 조선 후기에 이곳을 방문한 중앙 문인들의 인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서북 지역을 찾은 중앙 문인들은 낯선 변방의 풍광과 풍속을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문헌과 유적을 통해 고대사적 사실을 상기하며 그곳 역시 왕토(王土)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민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이 중앙 문인들의 발언을 전달하는 데 머무른 채 그 발언의 배경과 실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북 지역 한문학 연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서북 지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다. 서북 지역에 대한 당시 중앙 문인들의 인식은 적지 않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목민관 또는 유배객으로서 타의에 의해 서북 지역에 도래하였으며, 체류한 기간은 수 개월에서 수 년에 불과하였다. 이들이 서북 지역의 구체적 현실을 목도하였다는 사

14) 조선 후기 문인들의 북방고대사에 대한 관심과 영토회복의식의 배경에 대해서는 허대용, 「朝鮮後期 中華繼承意識의 展開와 北方古代史認識의 強化」(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를 참조.

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현실을 배제한 지역사와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리 깊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문자의 시선에 의존하는 연구의 한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으며, 현대의 연구자들 역시 이들의 왜곡된 인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문자의 시선에 의존한 결과 연구자의 시야가 연구 대상의 시야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방문자의 시선과 발언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

또다른 문제는 서북 지역 한문학 연구가 소재적, 배경적 측면에 국한되어 주체적 면모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 발전과 문학 창작의 주체로서의 지역인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역시 연구자의 시야가 조선 후기 문인들의 시야에 머무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문학 연구에서 서북 지역은 으레 문학적 형상화의 ‘대상’ 또는 ‘배경’으로 취급되었으며, 문학 창작의 ‘주체’로서 서북 지역을 주목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서북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그 속에서 성장한 지역인들이 남긴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역인의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 실정이다. 서북 지역을 문화적 불모지로 간주하는 통념을 답습한 나머지 지역인의 문화적 성취를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서북 지역이 조선의 강역에 편입된 이후로도 안정을 찾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사회의 문화적 발달이 다소 늦었던만큼 조선시대 서북 지역의 문인과 이들의 문학작품이 타 지역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대 문단에서 주목받은 서북 지역의 문인과 작품은 극히 드물었으며, 중앙 문인들은 서북 지역 문인의 존재에 대해 어두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17~18세기에 접어들면서 서북 지역에 대한 중앙 문인들의 인식은 조금씩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군사적 긴장 완화에 따라 서북 지

역의 경제적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척박하고 미개한 변방이라는 인식은 점차 제거되었다. 비록 지역인을 타자화하는 시각은 좀처럼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역 문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진출이 제한된 이들의 처지를 문제삼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¹⁵⁾는 점은 고무적이다.

서북 지역에서 문학적 소양을 갖춘 문인의 존재는 임란을 전후한 시기부터 발견된다. 현전하는 서북 지역 문인의 문집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16세기 말엽에 활동한 인물의 것이다. 그 이전에도 지역 문인이 존재하였던 것만은 분명하나, 그들의 문학적 역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관북시선(關北詩選)』과 『서경시화(西京詩話)』를 통해 17세기까지 서북 지역의 주요 문인과 작품은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하나, 이후 지역 문단의 문인과 작품의 개황을 알려주는 문헌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근대 서북 지역 문인들의 활동 양상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으므로, 18~19세기 서북 지역 문단의 동향을 파악하여 가교를 놓을 필요가 있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남아 있는 서북 지역 문인의 문집은 평안도가 20여 종, 함경도가 40여 종에 달한다. 현재로서는 현지 자료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추가적인 자료 발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특히 문명이 높았던 문인들의 저술은 대부분 전하지 않고 있는데, 일실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으나 이들의 존재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저자 미상으로 남아 있는 것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서북 지역 문인과 관련된 각종 고문서, 문집의 필사본 등이 유전(流轉)되는 상황을 목도한 바 있다. 서북 지역 문인의 존재가 알려질수록 자료 발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15) 장유승, 「조선 후기 변방 지역 인식의 변모 양상」, 『한문학보』 20집, 우리한문학회, 2009.

3. 서북 지역 한문학 연구의 과제

1) 문학담당층의 신분적 성격과 지역 사회의 권력 구조

서북 지역의 문학담당층은 문학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 계층, 즉 지역 문인이다. 일반적으로 조선 시대의 지역 문인은 신분상 사족(士族)으로서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적 이념을 지향하며, 지역 사회의 지배에 조력하는 한편 중앙 진출을 도모한다. 하지만 서북 지역 문인은 중앙 진출이 용이하지 않았는데, 이는 서북인을 청요직(淸要職)에서 배제하는 지역 차별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이 서북인 차별의 원인을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조선 태조가 서북인의 등용을 금지하는 유훈(遺訓)을 남겼다는 『택리지(擇里志)』의 기록¹⁶⁾이나 소세양(蘇世讓)이 사감(私憾)으로 서북인을 금고하였다는 실록(實錄)의 기록¹⁷⁾을 근거로 서북인 차별의 부당성을 운위하는 것이다. 심지어 지역 차별은 홍경래(洪景來) 난(亂)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근대 서북 지역의 신속한 개화를 지역 차별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홍경래의 난의 본질과 주도 세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¹⁸⁾,

16) “太祖以將帥受王氏禪代，其佐命功臣，又多西北猛將，既得國，遺命西北人勿大用。”(李重煥, <八道總論>, 『擇里志』) 『택리지』에 기록된 서북인 차별의 기원이 허구임은 이미 밝혀진 바이다.(오수창, 앞의 책, 21면)

17) “竊聞祖宗朝，西北之人，苟有才行，歷敷臺閣，而百餘年前，有一主文宰臣，奉使西方，與本道士子相失，倡爲謬論，始塞兩界人之清路，故遐方之人，遂不復振，以至今日。”(『仁祖實錄』 11년 10월 15일) 소세양이 서북인 차별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유는 서북인 차별이 16세기에 사림파가 사회와 정치를 주도함에 따라 빚어지거나 고착화된 현상임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오수창, 앞의 책, 22면)

18) 홍경래 난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오수창, 『홍경래의 난, 폭넓은 시각과 수많은 논쟁거리』(『역사비평』 통권 83호, 역사비평사, 2008)를 참조.

지역 차별이 개화를 촉진하였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단선적이다. 필자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서북 지역 한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한다고 본다. 연구자는 이러한 전문(傳聞)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차별의 원인 및 배경을 심층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북 지역 문인의 신분적 성격과 지역 사회의 신분 구조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서얼 문인이나 여항 문인의 문학작품을 연구하면서 이들의 신분적 정체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서북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분과 다름없으므로 서북인의 신분적 성격과 지역 사회의 신분 구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이들의 정체성을 도출할 수 있다. 서북 지역 문인의 신분적, 지역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 없이 이들의 문학 작품을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서북인 차별의 본질은 지역 차별이 아니라 신분 차별이다. 서북인 차별이 지역 차별이라는 고정관념은 조선시대 신분 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양반(兩班), 중인(中人), 상민(常民), 천민(賤民)의 4계급론으로는 서북 지역 사회의 신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조선시대의 신분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지역 사회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다.

조선시대 지역 사회의 지배계층은 크게 유임(儒任)과 향임(鄕任)으로 구분된다. 유임은 대개 사족으로서 지역 사회에 경제적 기반을 두고 자치 기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운영에 참여하는 한편, 기회를 보아 중앙으로 진출한다. 반면 향임은 향족(鄕族), 향곡양반(鄕曲兩班), 향대부(鄕大夫), 유향품관(留鄕品官) 등으로 일컬어지는 지역 사회의 토착 지배 세력이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족으로부터 분기하여 별도의 계층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족과 유사한 면이 적지 않으나 다소 격이 낮은 신분으로 취급받았다. 중앙 진출이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신분적

한계에 가로막혀 일정 수준 이상의 관직에 오르기는 어려웠다.

유임과 향임의 구분은 지역마다 상이하다. 충청도 지역은 유향의 구분이 분명하고 전라도와 경기 지역 역시 유향의 구분이 존재하였다. 반면 경상도 지역과 서북 지역은 유향의 구분이 없었으며, 서북 지역에서는 오히려 향임이 유임보다 중시되었다. 중앙 진출이 어려운 서북 지역 문인으로서의 향임으로 경제적 실리를 취득하고 지역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각 지역마다 향권 다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서북 지역의 경우 특히 심각한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지역 사회에 유향의 구분이 없다는 것은 지역 사회 지배세력이 모두 유임의 자격이 있다는 의미로도, 모두 향임에 불과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신분 구조 인식이 괴리되면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지역 차별로 갈등이 심화된 지역이 유향의 구분이 없는 서북 지역과 영남 지역이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신분 구조 하에서 서북 지역 문인의 신분적 위상은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가. 정민교(鄭敏僑, 1697~1731)의 다음 글은 서북 지역 문인의 신분적 위상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을사년(1725) 겨울, 나는 관찰사 윤공(尹公)을 따라 평양에 와서 외성(外城)의 황씨(黃氏), 노씨(盧氏), 김씨(金氏) 세 사람과 교유하였다. 또 진사 김점(金漸) 형제를 만났는데, 그들의 집안은 사족이다. 김점은 단정하고 문학이 있었으며, 형 김항(金沆)은 사람됨이 강직하고 논의가 강개하여 열사(烈士)의 기풍이 있었다. 하지만 늙고 곤궁하게 사느라 배웃조차 온전하지 않았다……

이런데도 평안도에 어진 선비가 없다고 하면서 평안도에서 진출한 사람에게는 조정이 청요직을 허락하지 않으며, 관찰사와 수령도 두루 찾아서 등용하거나 예외로 인도하지 않으려 한다. 심한 경우에는 시정의 거간꾼들을 기용하여 보좌관으로 삼아 사류의 윗자리에 두고서 위협하고 모욕하니, 이때문에 고상한 자는 갈수록 피하고 숨느라 나오지 않고, 간혹 조금 수양하였으나 뜻을 세움이 굳지 않은 자는 모두 기운이 꺾이고 생각을 바꾸어 점차 자기도 모르게 낮고 더러운 지경으로 들어간다.……

내가 보건대 김항은 이미 늙었으니 어쩔 수 없고, 그 밖의 몇 사람은 모두 젊고 뜻이 굳으니 장차 큰 성취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기운이 꺾이고 지조를 지키지 못할까 두렵다. 그러므로 이 글을 써 주어 분발하여 더욱 힘쓰게 하고자 한다. 또 당세에 선비를 찾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서 인재를 서쪽이나 남쪽으로 한정짓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¹⁹⁾

정민교는 1725년 관찰사로 부임하는 윤헌주(尹憲柱)를 수행하여 평양에 갔다가 김항(金沆), 김점(金漸, 1695~?) 형제를 비롯한 평양 선비들을 만났다. 정민교는 서북인 차별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평양 선비들에게 분발하여 학행을 닦아 훗날 쓰이기를 기다리도록 당부하였다.

정민교가 만난 평양 선비들 가운데 김점은 『서경시화』의 편자로서 진사시에 급제하고 평안도 지역에서 문명을 떨친 문인이다. 반면 정민교는 진사시에 급제하였지만 형 정래교(鄭來僑)가 역관 중인이라는 점을 감안

19) “乙巳冬, 余隨觀察使尹公來箕都, 得與外城黃盧金三子者交, 又見進士金漸兄弟, 其家世固士族, 而漸既端靜有文學, 兄沆爲人剛確, 論議慷慨, 有烈士氣, 而年老窮居, 布衣不完.……若是而曰關西無賢士, 其自西土進者, 朝廷不許清職, 爲方伯守宰者, 又不肯搜羅而用之, 禮義以導之, 甚者或舉市井駟儉之徒而爲佐史, 加之士流之上而辱之. 以此其高者愈避匿不出, 或稍自修飭而立志不固者, 皆沮其氣, 易其慮, 駸駸然入於汚下而莫之知也.……吾見金沆已老不可爲矣. 自餘數人者, 皆年少而志剛將大有成就, 而猶恐其有所自沮, 未得充其操也, 故書此以贈, 欲使之奮發加勉, 又欲使當世造士者, 觀此有以知人才之不以西南限也.”(鄭敏僑, <贈平壤外城諸子序>, 『寒泉遺稿』 권2)

하면 그의 신분은 중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민교가 평양 선비들의 성명을 직서(直書)하며 이들의 윗자리에서 훈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민교는 이들을 ‘사족’, ‘사류’로 일컬었으나 이것이 엄밀한 신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분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면 비록 관찰사의 위세를 빌었다고는 하나, 중인 신분인 정민교가 감히 이들을 하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당시 서북 지역 문인의 신분적 위상이 중앙에서 파견된 세력 있는 중인만도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북 지역 문인의 신분적 위상이 이처럼 낮았던 원인은 사족이 부재한 서북 지역 사회의 신분 구조가 비교적 수평적이고 유동적이었기 때문이다.²⁰⁾ 결국 서북 지역 문인들은 지역 사회 내에서 사족으로 자처하며 지역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문집을 보면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가문의 위상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역설적으로 이들이 신분적 위상이 불안정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²¹⁾

누구나 인정하는 문벌을 가진 벌열이라면 사족임을 강조할 필요도, 신분적 정체성을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조선 후기 신분 구조의 지각 변동 하에서 신분적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던 이들은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서북 지역 문인들 역시 자신들이 사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신분적 한계를 스스로 인정할 수는 없는

20) 서북 지역에 사족이 부재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수창, 앞의 책, 12~16면 참조.

21) 평안도 지역에서는 지역 사회의 우위를 차지한 세력을 중심으로 鄉案이 작성되어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향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김선주, 「조선 후기 평안도 정주의 향안 운영과 양반문화」, 『역사학보』 185집, 역사학회, 2005, 71면.

노릇이었기에 불우의 원인을 지역 차별로 돌렸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사회의 신분 구조에 대한 연구는 사학계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아직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지역 문학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에 일조해야 마땅하나, 현재로서는 사학계의 선행 연구조차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북 지역 사회의 신분적 구조와 지역 문인들의 위상, 그리고 이에 대한 중앙의 인식은 비단 서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향 분기 이후 조선 후기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연관되므로 반드시 탐구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2) 경계 지대로서의 문화 교류 가능성 및 근대와의 접점

평안도와 함경도는 서북 지역으로 통칭되지만, 두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배경은 차이가 크다. 함경도의 인구는 평안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문인층의 규모를 짐작케하는 과거 합격자의 수로 말하자면 함경도는 평안도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차이에 못지않게 각도의 남부와 북부 지역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평안도는 청천강을 경계로 청북(淸北)과 청남(淸南)으로 구분되며, 함경도는 마천령을 기준으로 북관(北關)과 남관(南關)으로 구분된다. 각 지역은 서로 다른 사회 발전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행정적으로도 상이한 조치가 취해졌다. 광범위한 서북 지역의 복잡다단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배경의 차이는 물론, 지역사와 지역문화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차이에서 비롯된 평안도 문인과 함경도 문인의 지역 정체성의 현격한 차이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²²⁾ 함경도 지역 문인들의 학

22) 장유승, 앞의 논문, 106~137면.

문적 경향은 비교적 보수적이며, 대체로 권위의존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반면 평안도 지역 문인들의 학문적 경향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기존의 이념과 질서에 저항적인 면모를 보인다. 따라서 경계 지대로서의 문화 교류 가능성, 즉 새로운 문물의 유입과 그에 상응하는 반응은 역시 평안도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평안도의 지리적 여건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물론 문화 교류 가능성을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조선시대 서북 지역에서 중국인과 조선인의 비공식적인 접촉 및 교류는 좀처럼 확인하기 어렵다. 일부 변민(邊民)이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국경을 넘었다가 외교적 마찰을 야기한 사례는 자주 발견되지만, 그 때문에 ‘범월(犯越)’은 중죄로 취급되었다. 함경도 지역의 북관개시(北關開市) 역시 조정의 엄중한 감시로 인하여 규정된 물품의 교역을 어떠한 형태의 지적 교류도 찾아보기 어렵다. 전근대 시기의 유일한 문화 교류 통로는 연행이었다.

하지만 서북 지역 문인에게서는 연행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연행 경험이 있는 서북 지역 문인은 이시항(李時恒) 정도가 고작이다. 그는 문재(文才)를 인정받아 1728년 사은겸진주사(謝恩兼陳奏使)의 별종사관(別從事官)으로 연행하였으며, 이때의 견문을 <연행견문록(燕行見聞錄)>으로 정리하였다.²³⁾ <연행견문록>은 청(淸)의 제도와 풍속에 대한 10여 조의 짧은 기록인데, 그다지 독창적인 면모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양국을 넘나들며 새로운 문물을 흡수하였을 가능성은 하층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정수(李鼎受)의 『유연록(游燕錄)』에 따르면 연행 사절을 수행한 하례(下隸)는 대부분 평안도 출신이었다고 한다.²⁴⁾ 사대부들의 연행 경험이 한두 회에 불과한 반면 역관을 비롯한 실무진의

23) 李時恒, 『和隱集』 권5.

24) 李鼎受, 『游燕錄』,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연행 경험은 수십 차례에 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누구보다도 연행 경험이 풍부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이념의 속박이 덜하여 새로운 문물의 수용에도 적극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항을 전후한 시기의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이 역시 주요한 연구 대상이다.

서북 지역이 지닌 경계 지대로서의 성격은 공간적 경계 뿐만 아니라 시간적 경계에도 해당한다. 개항 이후 문명개화와 교육계몽에 앞장선 인물들 중에는 서북 지역 출신이 상당하다. 조선 후기 서북 지역 문인들의 열등한 사회적 위상과 열악한 문화적 수준을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현상에 분명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전근대의 서북인 차별을 그 원동력으로 거론하였다. 차별로 인하여 서북인들은 성리학적 이념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서구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이었으며, 지역 사회의 신분 질서가 공고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기존 이념을 탈피하는 데 일조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교회사 연구에서 두드러진다. 개항 이후 평안도 지역의 교회수와 교인수 증가는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이었는데, 이처럼 적극적인 개신교 수용은 정치적 소외, 경제적 발전, 그리고 미약한 성리학적 질서 등에 힘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치적 소외는 정치적 박탈감을 경제적 영역에서의 보상심리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지역 사회의 미약한 성리학적 질서는 새로운 이념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²⁵⁾

개신교 수용이 근대 교육의 진흥과 근대 기업의 발달을 촉진하여 근대성 확산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정치적 소외와 미약한 성리학적 질서가 개화를 촉진하였다는 주장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가설에 불과하다. 차

25) 李光麟, 앞의 논문, 37~42면 ; 이진구, 앞의 논문, 164~170면.

별에 대한 불만이 새로운 이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서북 지역의 경제적 여건 또한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조선 후기 서북 지역이 상업 발달로 비약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세하였다거나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경제사 방면 연구의 결과이다. 상업 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이 근대적 지식인의 배출과 지역 사회의 근대화에 기여하였다는 근거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서북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서 근대성의 맹아를 찾으려는 막연한 시도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북 지역 사회에서 성리학적 이념의 지배력이 타 지역에 비해 느슨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성리학적 이념을 추구하는 문인층의 존재와 이들이 지역 사회를 주도한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더구나 조선 후기 서북 지역 문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구축한 지역문화적 토대가 근대 지식인의 등장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은 교회사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만하다.

평안도 지역에서 근대적 지식인이 대거 배출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 평안도 지역 문인들의 강학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와그너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에서 문과 급제자 수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평안도 정주이다. 정주 출신 문과 급제자 수는 321명으로, 17세기에 15명, 18세기에 129명, 19세기에 177명이 배출되었다. 18세기부터 급제자의 증가율이 현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처럼 급격한 증가율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평안도 지역 과거 급제자의 증가는 정주 출신 급제자의 증가에서 비롯된 현상이다.²⁶⁾

서북 지역 출신 과거 합격자의 증가는 지역 사회의 교육기반 확대에 많은 부분을 빚지고 있다. 1711년 당시 정주의 교생수는 무려 1만여 명에

26) 에드워드 와그너, 앞의 책, 54~65면.

달하였다. 정주 교생의 액수가 본디 90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중 상당 수는 군역(軍役)을 피해 투탁(投託)한 무리로 추정된다. 하지만 서북 지역 출신 과거 합격자의 급격한 증가는 이미 시대적 추세였으며, 당시 조정에서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었다.²⁷⁾

지역 사회의 교육기반 확대에 기여한 것은 서원 및 향교보다는 지역 문인들에 의해 설립된 소규모 학사(學舍), 서숙(書塾) 등이었다. 예컨대 청북 지역의 또다른 도회인 철산(鐵山)의 경우, 1786년 당시 사설 서당이 47개소에 달하였다. 당시 철산의 인구는 5571인이었으므로, 약 120명당 1개소의 서당이 존재하였던 것이다.²⁸⁾ 철산의 사례를 평안도 전지역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역 문인들의 활발한 활동이 감지되는 청북 지역 일대의 상황은 철산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9세기 평안도 유림의 종장 박문일(朴文一, 1822~1894)과 박문오(朴文五, 1835~1899)는 당시 평안도 관찰사 민병석(閔丙奭)과 남정철(南廷哲)의 후원을 받아 평안도 전역에 수십 곳의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지역 사회의 교육 기반 확대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²⁹⁾

그렇다면 조선 후기 평안도 지역에 이처럼 많은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강화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필자는 강화활동에 참여한 이들의 각기 다른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선 조정에서 평안도 지역 사회의 강화활동을 장려한 목적은 성리학적 이념의 보급과 사회 질서의 수립에 있었다. 흥경래의 난과 같은 체제 내의 동요와 서세동점(西勢東漸)으로 인한 체제 외의 위기로 지역 사회가 동요하자 조정에서 서북 지역 문인의 진출을 배려하고 강화 활동을 장려하였던 것이다.

27) 장유승, 앞의 논문, 142~143면.

28) 鄭趾賢, 『銅山誌』 書塾條.

29) 장유승, 앞의 논문, 207~211면.

하지만 조정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강학을 주도하는 지역 문인들은 지역 사회 내에서 높은 위상을 획득하였으며, 강학에 참여하는 이들은 과거를 준비하며 신분 상승을 기대하였다. 과거 합격이 곧 중앙 진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북 지역 문인들은 지역 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몰두하였다. 결국 서북 지역 출신 과거 합격자의 증가는 이들의 강렬한 신분상승욕구를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근대 평안도 지역 문인들에 의해 설립된 교육 기관은 차츰 근대 학교로 전환되었으며, 그 결과 평안도 지역에 근대 교육이 급속히 보급되어 근대적 지식인의 배출에 기여하였다. 19세기 평안도 지역의 기초 교육이 성황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된 사실이다. 1908년 사립학교령이 발표된 뒤 학부(學部)의 인가를 받은 학교는 총 2250개 교이며, 이중 절반이 서북 지역에 소재하였다.³⁰⁾

이 시기의 근대 학교들은 ‘민족사학’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 나머지 지역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평양 대성학교(大成學校)와 정주 오산학교(五山學校)의 사례에서 평안도 지역 근대 학교의 설립에 지역 문인의 기여와 지역 문화의 토대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북 지역 출신의 근대적 지식인들도 자신들의 학문적 연원이 전근대 평안도 지역 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³¹⁾

물론 근대적 지식인의 등장은 세계 질서의 전환기라는 맥락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전근대 서북 지역 문인과 근

3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I, 1995, 902~903면. 평안도 지역 일대에 학교 설립의 성황은 『매천야록』에서도 지적된 바이다.(黃玹, 『梅泉野錄』 1906년 9월)

31) 1906년 설립된 西友學會의 구성원들은 서북 지역의 근대적 지식인들이 대부분 박문일과 박문오 형제의 문하에서 배출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朴殷植, <賀吾同門諸友>, 『論說』, 『西北學會月報』 제1호)

대 서북 지역 지식인의 관계는 함부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근대 서북 지역 지식인의 상당수가 자신들의 선조를 지역 문인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19세기 서북 지역 문인들의 강학활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근대적 지식인의 등장이 지역문화의 토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4. 맺음말

현재 서북 지역 문학담당층의 성격과 문학작품의 특징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국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북 지역의 문화적 지형도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서북 지역 사회의 발전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늦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역 문인의 문화적 성취 역시 높지 않게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예적 수준과 문학사적 위상만이 문학 작품을 평가하는 유일한 척도는 아니다. 서북 지역의 지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서북 지역 한문학 연구의 의의는 단순히 문학 작품에서 지역성을 탐색하는 지역 문학 연구에 그치지 않는다.

서북 지역은 공간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며, 시간적으로 전근대와 근대가 만나는 접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북 지역 한문학 연구에는 문학사의 외연을 넓히고 근대 문학과와의 연관성을 발견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전근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교류의 실상을 발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심지어 “통일 시대를 위한 인문학 연구의 한 방법”³²⁾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서북 지역 한문학 연구를 위해 필수적

32) 이승수, 앞의 논문, 362면.

인 지역사적 토대에 대한 고찰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 문인의 신분적 성격과 이질적인 지역 사회의 구조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두 지역의 문인들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서로의 존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없었다는 의문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사학계의 선행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학 연구자 역시 문학적 텍스트를 바탕으로 사료의 눈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지역 문학 연구는 문학 연구의 범위를 지역으로 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관련된 문학 작품을 포함한 모든 문헌 자료를 검토하여 지역 사회의 실상과 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밝히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자료

西北學會, 『西北學會月報』,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韓國開化期學術誌, 亞細亞文化社, 1978.

李時恒, 『和隱集』,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李鼎受, 『游燕錄』,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李重煥, 『擇里志』,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李泰鎭·李相泰 編, 『朝鮮時代私撰邑誌』, 韓國人文科學院, 1989.

鄭敏僑, 『寒泉遺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黃 玟, 『梅泉野錄』, 林熒澤 等 校註, 문학과지성사, 2005.

단행본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I, 국사편찬위원회, 1995.

-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김성언 교주, 태학사, 1996.
- 에드워드 와그너,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이훈상·손숙경 옮김, 일조각, 2008.
- 오수창, 『朝鮮後期 平安道 社會發展 研究』, 일조각, 2002.
- 玄相允, 『원전朝鮮儒學史』, 『幾堂玄相允全集』, 나남, 2008.
- Sun Joo Kim, *Marginality and Subversion in Korea - The Hong Kyongnae Rebellion of 1812*, Washington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7.

논문

- 고승희, 「조선후기 함경도지역의 상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권내현, 「조선후기 평안도 재정 운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김선주, 「조선후기 평안도 정주의 향안 운영과 양반문화」, 『역사학보』 185집, 역사학회, 2005, 65~105면.
- 김태영, 「海左 丁範祖의 함경도 유배기 漢詩 일고찰」, 『한국어문학연구』 54집, 한국어문학연구회, 2010, 323~352면.
- 노관범, 「1875~1904년 朴殷植의 朱子學 이해와 教育自強論」, 『한국사론』 43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0, 91~134면.
- 박종훈, 「楚亭 朴齊家の 「愁州客詞」 一考」, 『동양학』 4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89~113면.
- 성당제, 「약천 남구만의 고토 회복의지 - 변방 음영시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10집, 우리한문학회, 2004, 143~166면.
- 손혜리, 「鑑洲 朴琮의 <白頭山遊錄> 研究」, 『大東漢文學』 제26집, 대동한문학회, 2007, 311~346면.
- _____, 「조선후기 문인들의 백두산 유람과 기록에 대하여」, 『민족문화사연구』 37집, 민족문화사학회, 2008, 134~166면.
- 신익철, 「조선조 묘향산에 대한 인식과 문학적 형상」, 『반교어문연구』 17집, 반교어문학회, 2004, 55~79면.
- 신장섭, 「秋齋 趙秀三의 <北行百絶> 연구」, 『인문과학연구』 12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109~135면.
- 안대회, 「朴齊家の 『竟信堂夾袋』와 北關風情」, 『한국한시연구』 12집, 한국한시학회, 2004, 71~101면.
- 오수창, 「홍경래의 난, 폭넓은 시각과 수많은 논쟁거리」, 『역사비평』 통권 83호, 역

- 사비평사, 2008, 424~431면.
- 李光麟, 「開化期 關西地方과 改新教 - 改新教 收容의 一事例」, 『한국기독교연구논총』 1집,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3, 29~50면.
- 이성민, 「汾西 朴瀾의 <西京感述>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제25집, 열상고전연구회, 2007, 33~65면.
- 이승수, 「박제가의 北關 風俗誌, <愁州客詞>」, 『한국언어문화』 29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333~363면.
- 이은주, 「申光洙의 <關西樂府> 小考 - ‘風流’를 중심으로」, 『韓國漢詩研究』 13집, 한국한시학회, 2005, 357~385면.
- 이진규, 「한국 개신교 수용의 사회문화적 토대에 관한 연구 -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2집,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6, 157~174면.
- 이 훈, 「東海 趙琮鎭의 關北 紀行과 『東海北遊錄』 연구」, 『한문고전연구』 21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177~219면.
- 장유승, 「조선 후기 변방 지역 인식의 변모 양상」, 『한문학보』 20집, 우리한문학회, 2009, 173~198면.
- _____, 「朝鮮後期 西北地域 文人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정해득, 「朝鮮後期 關北 儒林의 形成과 動向」, 『경기사학』 2호, 경기사학회, 1998, 73~103면.
- 조준희, 「海山 朴東欽의 항일민족운동」, 『송실사학』 40집, 송실사학회, 2010, 45~76면.
- 주영아, 「박세당의 北關宦遊記 北征錄 연구」, 『東方學』 17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9, 35~70면.
- 진재교, 「<북새잡요>에 나타난 북관의 진경과 변경민의 삶」, 『동아시아문화연구』 37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3, 29~55면.
- 허태용, 「朝鮮後期 中華繼承意識의 展開와 北方古代史認識의 強化」,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ABSTRAC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Research on the Northern region Literature.

Jang Yoo-Seung

The significance of research on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is not only that of research on regional literature. The northern region is the space that reveal the conflict between center and local, encounter between premodern and modern. The significance of research on the northern region literature is to expand the extension of Korean literary history, and to explore the interrelationship with modern literature and the possibility of cultural exchange.

But the interest of researchers stayed on the material aspect. Cultural map of the northern region remained uncharted territory as ever. The existence and identity of the northern literati has not been properly identified y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ecedent study by historian, and to cast light upon the literature text. Research on regional literature have a significance to reveal the real state of regional society an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Key Words the northern region, regional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Cultural map of the northern region

논문투고일 : 2011. 10. 15
심사완료일 : 2011. 11. 30
게재확정일 : 2011. 12. 05